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만든다

광양시·하동군 손잡고 200억 투입 2013년까지 완공

올레·둘레길 같은 도보길 내달부터 본격 조성

섬진강변에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같은 도보길이 조성된다. 국토해양부와 광양시에 따르면 섬진강변에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42km의 도보길을 조성하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을 다음달 본격 착수한다. '섬진강 테마로드'는 섬진강 하구 섬진교부터 섬진강변을 따라 광양

시 구간의 수월정~송정공원~매화랜드~남도대교를 거쳐 경남 하동군의 화개장터, 평사리공원, 송림공원을 연결하는 도보길로 국토부와 광양시, 하동군이 협력해 2013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다. 섬진강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지형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등 친환경 생태·문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광양시 조준규 관광과장은 "섬진강 길이 완공되면 인근 주민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곳을 북쪽의 지리산, 남쪽의 남해, 여수의 해양관광과 연계해 남해안 관광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지난 4일 여수시 오전동 만성리 해수욕장앞 해상에서 여객선 화재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여수해경 508함 등 중·소형 경비함정 10척과 여수소방서 소방정 1척, 여수 지방해양안전청 및 여수세관 감사정, 122 해양경찰구조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생물방제센터 육성 기업 1호 졸업

유용곤충 연구소 2년만에 해충 천적 생산회사로 우뚝



(재)전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산하 생물방제센터가 친환경 생물적 방제산업 관련 기업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물방제센터에 따르면 (주)한국 유용곤충연구소(이하 유용곤충연구소)가 입주한 지 2년여 만에 지난 4일 센터 인근 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생물방제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첫 이전 사례이다. 유용곤충연구소는 지난 2002년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친환경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적인 천적(위생해충·원예해충)생산 전문회사이다. 유용곤충연구소는 지난 2008년 4월 생물방제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지사를 설립한 후 ▲곤충을 이용한 황새재 대체물질 개발 ▲소나무나 잣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소나무재선충의 천적 '개미침벌' 적응기술 개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유용곤충연구소는 2011년 농업수산식품부 곤충생산단지 조성 및 곤충체합화합시설 조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비 12억을 지원받았으며, 내년 초에 본사를 모두 이전할 계획으로 생물방제센터 인근에 2만

7000㎡ 규모의 부지를 조성 중이다. 생물방제센터는 유용곤충연구소에 ▲시험연구실(60㎡) ▲천적사육실(621㎡) ▲천적 사육온실(2480㎡) 등을 제공하는 한편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했다. 생물방제센터는 지식경제부 지역립수산식품부 곤충생산단지 조성 및 곤충체합화합시설 조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비 12억을 지원받았으며, 내년 초에 본사를 모두 이전할 계획으로 생물방제센터 인근에 2만

곡성 석곡권역에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

오는 2014년 곡성군 석곡권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된다.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전북 장수군에 있는 동화댐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끌어와 공급할 계획으로 총 2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달 중에 착공이 들어가 2014년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석곡, 목사동, 죽곡면 등 87개 마을 주민 62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친절한 구례경찰 평가서 전국 4위 도내 1위

구례경찰서(서장 이재승)가 민원인에 대한 전화 친절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5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상반기와 7월중 전화친절도 점검결과 전국 239개 경찰관서 중 4위,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에서 비공개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석곡, 목사동, 죽곡면 등 87개 마을 주민 62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중화요리로 6년째 '사랑의 음식나눔'

김희석씨 순천역 로타리서

순천지역 한 중화요리집 운영자가 매년 10월이 되면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 대접을 6년째 실천하고 있어 주위에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조곡동 순천역 로타리에서 중화요리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희석(59)씨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월 '노인의 날'에 맞춰 '사랑의 음식 나눔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4일 400여명의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동부취재본부=이정영기자 jyj@

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평일에도 모든 메뉴를 6년째 20% 할인해 주고 있다. 조곡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중인 김희석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정(情)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정영기자 jyj@

전 북

호남최대 화훼유통센터 개장

로즈피아 96억 투입... 전주에 선별 라인 가동

호남 최대 규모의 화훼유통센터가 전주에 들어섰다.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는 5일 전주시 덕진구 강동동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 종합처리장 개장식을 갖고 장미 선별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로즈피아는 지난해에 농수산식품부의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39억원)와 시·도비(40억원)를 지원받는 등 총 96억원을 들여 화훼처리장을 지었다. 2007년 꽃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일할 곳 오수면에 설립한 로즈피아는 2008년 518만 달러, 2010년 1700만 달러어치의 장미와 국화를 일본 등으

로 수출해 전국 화훼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꾸준한 성장세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로즈피아의 회원은 153명(50ha)으로 2004년 44명(23ha)보다 3.5배 증가했다. 회사는 내년에 화훼 종합처리장에 전시 관매장과 공동 육묘장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이다. (주)로즈피아 관계자는 "화훼 처리장 개장으로 도내 화훼농가의 수송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선별처리 규모도 확대돼 수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지자체 金庫 유치 로비 논란

농협 부안군지부, 군의회 해외연수 경비 지원하러다 거절 당해 말성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가 부안군의회에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러다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군 금고 지정을 둘러싼 뇌물공여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농협 부안군지부가 지난달 19~24일 5박6일간 이뤄진 군의회 중국 연수경비를 전달하러 했으나 군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현재 농협 부안군지부는 부안군과 군 금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해 3800억원(일반·특별회계)에 이르는 부안군 재정의 예탁금을 취급하고 있

고 각종 지방세 수납을 맡고 있다. 이번 농협 부안군지부의 군의회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시도는 그동안 자치단체 금고 선정때만 되면 지역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자치단체 예산 예탁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고 보면 예측된 사실이라는 게 금융가의 정설이다. 이에 대해 군 공무원노조는 "자금을 투명하게 하지 못한 지자체와 금고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계에서 이 같은 부조리가 발생했

다"며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고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안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지방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간접적 인 사례, 중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주민 김모씨는 "지자체는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환원에 앞장설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는 등 금고유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한 남원 특산물



남원시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시는 올해 2200만 달러의 농·특산물을 전세계에 수출할 계획이다. <남원시 제공>

지리산 친환경 먹거리 직거래

꾸러미사업단 도·농상생 두부·콩나물 등 직배송

"지리산에서 생산된 친환경 먹거리를 소비자들과 직거래 합니다." 남원지역 농부들이 소비자들과 손을 잡고 바쁜 도·농 상생모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리산 산내 꾸러미 사업단은 친환경 제철 먹거리와 이를 재료로 한 두부·콩나물·유정란·반찬 등을 꾸러미로 만들어 매주 1회 도시 회원들에게 보내는 직거래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을 함께 살리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해 남원시 농업

기술센터(소장 최재봉)의 농산물 가공사업을 맡겨줌으로 해 두 부만드는 기계를 구입하고, 콩나물 재배기를 들이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사업단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올 초부터 시민단체와 연계해 꾸러미를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리산 산내에서 아침에 만들어진 꾸러미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당일 고객 가정까지 배달되고 있다. 꾸러미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스티로폼 박스와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박스는 회수돼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당일 직배송에 따른 신선한 물품이 전달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구절초와 가을풍경 8일부터 정음 '구절초 축제'

'2011 정음 구절초축제'가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정음시 산내면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술소 구절초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구절초와 가을풍경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예년에는 행사장을 오후 6시까지 개장했지만 올해는 밤 9시까지 연장해 야간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올해부터는 입장료(2000원)를 징수한다. 입장권은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야간입장(오후 6시 이후)은 무료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8~9일 흥부제 '춘양 테마파크' 무료개방

남원시 시설사업소(소장 강구섭)는 8~9일 이틀간 '제19회 흥부제'를 맞아 춘양 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한다. 이번 무료개방은 우애·나눔·보은·행운의 깊은 민족정신을 보여주는 '흥부제'를 보기 위해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환영하는 의미로 마련했다. 흥부제 기간동안 춘양 테마파크 인근 사람의 광장에서는 흥부골 농악경연대회와 흥부체험마당, 짚풀공예 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울주군과 지역 특산물 교류 협약

순창군(군수권한대행 신현승)이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지역내 특산물(전통장류·옹기) 관련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특산물 관련 문화교류를 위해 지역내 특산물 관련 정보·자료제공과 순창

군 장류축제 및 울주군 옹기축제 시 상호 홍보전시관을 운영해 양 지자체의 균형발전 및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자 이뤄졌다. 순창군은 울주군 옹기축제장에 순창 홍보관 부스를 운영해 순창장류와 발효산업, 전통 장류제품을 전시 홍보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5·18 담은 블랙코미디 '짬뽕' 고창 무대에

광주 5·18 민주화항쟁을 소재로 한 블랙코미디 연극 '짬뽕'이 6~7일 오후 7시 30분 고창 문화의전당 무대에서 공연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창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발한 발상의 작품이다. 연극 '짬뽕'은 지난 2004년 초연이후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작품이다. 관람료는 성인 3000원·학생 1500원이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